2020-2학기 사(史): 시대와 정신 소논문

**김기덕에게 씌워진 오리엔탈리즘이란 불명예**

202021807 손종욱

목차

Ⅰ. 서론

Ⅱ. 오리엔탈리즘의 정의

Ⅲ. 영화 속에 드러나는 오리엔탈리즘

Ⅲ-1. 동양 영화 내부에서의 오리엔탈리즘 - <패왕별희>

Ⅲ-2. 서양에서 모방된 오리엔탈리즘 - <라스트 사무라이>

Ⅲ-3. 영화 속 오리엔탈리즘의 결론

Ⅵ. 김기덕 감독 영화의 유형

Ⅵ-1. 파괴된 도덕성 속 고통받는 인물상- <빈 집>, <나쁜 남자>

Ⅵ-2. 인간의 나약함과 찌질함 –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악어>

Ⅵ-3. 사회적 이슈 – <그물>, <일대일>

Ⅵ-4. 자전적 다큐멘터리 – <아리랑> <야생동물 보호구역>

Ⅴ. 결론

Ⅵ. 참고문헌

- -

**Ⅰ. 서론**

2020년 12월 11일. 김기덕 감독이 라트바아에서 코로나 19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얼마 안 돼 이와 관련된 확정 보도가 나왔고, 그의 사망이 확실해졌다.[[1]](#footnote-1) 영화 촬영 과정에서 나온 폭행을 포함해 감독이 저지른 행위는 용서받을 순 없겠지만 그가 한국 영화에 큰 족적을 남긴 것만은 부정하진 않는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엔 항상 두가지 꼬리표가 붙는다. 억압적인 남성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적인 영화, 파격성으로 주목받는 오리엔탈리즘의 대표격 영화. 그를 다룬 평론가들의 비평집은 모두 두 내용들로 귀결된다. 실제로 이 교양 과목에서도 김기덕이 오리엔탈리즘의 대표적인 수혜자이며, 그가 서양으로부터 주목받은 건 오리엔탈리즘 덕분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에겐 남성성을 내세운 폭력적인 영화라는 꼬리표가 붙는 건 틀린 말이 아니다. 김기덕 감독의 대표작 <나쁜남자>에선 평범한 여대생을 창녀로 만들고 사랑하게 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한다. 그의 영화에선 근친상간과 잔인한 성적 묘사, 성매매 등 성과 관련된 음지의 행위가 서스럼없이 드러난다.

그러나 충격적이고 잔인한 묘사가 등장한다고 해서 오리엔탈리즘과 연결된다고 말할 수 없다. 묘사와는 상관없이 영화 속 담긴 작품성만으로 인정받는다면 오리엔탈리즘의 수혜자가 아니다. 나는 이번 레포트에서 김기덕에게 항상 붙는 오리엔탈리즘의 수혜자라는 타이틀을 떼어내고 싶다. 그가 받은 상에 항상 붙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꼬리표. 오리엔탈리즘이란 무엇이며, 왜 그에게 그런 꼬리표가 붙었는지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번 레포트에선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오리엔탈리즘의 수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오리엔탈리즘 영화로 대표되는 영화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해외 영화제에서 초청받거나 수상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특징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나온 영화들의 특징을 오리엔탈리즘과 연관 지어 말할 것이다. 국내 최초로 3대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영화 <피에타>부터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서 수상한 <아리랑>, 베니스 영화제에 진출했던 영화 <그물>, 김기덕 감독의 최다 흥행작인 <나쁜 남자>까지 각기 다른 유형을 지닌 김기덕 감독만의 특성을 가진 영화들에 대해 알아본 후 이러한 영화들과 오리엔탈리즘과의 연관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오리엔탈리즘의 정의

김기덕 감독을 언급할 때마다 엮어 나오는 용어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동양을 의미한다.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에 대해 인식하고 정의하는 서양의 담론에서 시작됐다. 처음부터 오리엔탈리즘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지진 않았다. 오리엔탈리즘은 단순히 동양을 다루고 동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학문일뿐이었다. 하지만 19세기, 20세기에 일러 동양에 대해 논하는 학술적 자료가 동양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동양을 신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오리엔탈리즘은 점차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었다. 지금은 동양에 대해 논하는 학술적 논담이라기보단 서양인들이 동양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을 다루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히 동양인을 미개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그치지 않고 동양 불교 특유의 분위기나 일본의 문화 등 특정 국가의 문화를 숭상시하고 우아하게 여기기도 한다. 오리엔탈리즘은 중국을 숭상시하고 중국의 문화를 우월하게 여기는 시누아즈리, 일본의 문화를 추종하는 자포네스크,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문화를 선호하는 페르소필리아 등이 있다. 오리엔탈리즘은 지식 여부와 상관없이 제창됐다. 칼 마르크스조차 “동양은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 대변되어야 한다”며 동양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한계를 보였다.

이렇게 오리엔탈리즘이 부정적인 의미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오리엔탈리즘은 단순히 이방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동양을 의미하지 않게 됐다.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오리엔탈리즘엔 편견이 녹아있고, 자신들을 상위적 존재로 여기고 동양인을 열등적 존재로 간주하는 서양인들의 우월성이 담겨있다. 이는 18세기에 이르자 절정으로 이른다. 산업혁명으로 발전을 급진적 발전을 이뤄낸 서양인들이 동양을 미개하고 후진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식민주의, 제국주의와 결합한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단순한 약자로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에 의해 지배당해야 할 약자로 여겼고 동양을 제국주의에 의해 지배당해야만 하는 존재로 정의했다. 오리엔탈리즘적 인식이 제국주의 침략에 정당성을 가한 셈이다.[[2]](#footnote-2)

앞서 말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오늘날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에 존재하지 않는 동양만의 기묘한 분위기나 신비한 존재로 서양 사람들에게 편견을 주는 내용을 의미한다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다.

3. 영화 속에 드러나는 오리엔탈리즘

Ⅲ-1. 동양 영화 내부에서의 오리엔탈리즘 - <패왕별희>, <열대병>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 인터넷의 영향으로 21세기는 전세계 사람들이 세계화를 넘어 하나로 뭉쳐가고 있다. 2020년 들어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세계화가 위축되기도 했지만[[3]](#footnote-3) 이를 원격 회의나 VR 기술 등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진정한 세계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세계화의 움직임은 문화, 영화계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세계를 뒤흔든 영화 <기생충>은 한국과 프랑스에서 거의 비슷한 날짜에 개봉했다. 해외에서 만들어진 영화도 전세계 동시 개봉이란 이름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비슷한 날짜에 개봉하는 판국이다. 한국을 휩쓴 마블의 <어벤져스 신드롬>은 해당 영화가 전세계에서 동시에 개봉하지 않았다면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현재와 달리 1990년대는 비교적 문화의 문이 닫혀 있던 시기였다. 해외 배급사가 우리나라에 배급사를 설립하고 직접 배급에 나서는 현재와 달리 90년대의 해외 영화들은 한국 배급사의 수입을 통해 상영이 이뤄졌다. 1991년 한국을 휩쓸었던 영화 <터미네이터 2>는 수입사로부터 2백만 달러의 액수를 받고 수입됐지만, 지난해 개봉한 <터미네이터 : 다크페이터>는 20세기 폭스 코리아에 의해 해외 각국과 같은 날짜에 개봉했다. 이처럼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전세계의 영화는 하나로 이어지고 있지만, 1990년대만 해도 그 문은 닫혀 있었다. 해외 관객들에게 열린 영화는 제한적이었고 그들은 자신에게 보여진 몇몇의 동양 영화만 보고 동양을 평가했고 다른 영화들을 볼 수단이 전무했다. 이는 1990년대의 해외 관객들에게 동양 영화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대표적인 예시가 1993년 개봉했던 영화 <패왕별희>다. <패왕별희>는 개봉 당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골든글러브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을 휩쓸며 세계 영화계를 제패했다. 문제는 해당 영화가 마치 동양의 모든 것을 보여준 마냥 의식될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이야 아시아 문화를 접할 길이 다양하지만 1990년대 서양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아시아권의 문화는 한정적이었다. <패왕별희>에 나오는 경극 문화, 동성애 등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특징으로 오해되기도 했다. 영화는 원작과 달리 영화 내부에 동성애적 플롯을 기입했고, 역사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척하며 오리엔탈리즘을 강조했다.[[4]](#footnote-4) 실제로 해당 영화를 만든 천카이거 감독은 <패왕별희>를 만들며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지 의식하며 작업했다고 말한 적 있다.

패왕별희를 비롯한 동양을 대표시하는 영화들은 동양에서 만들어져 비평적으로 호평을 받고 입소문을 탄 후 해당 문화가 동양의 신비성을 대표하는 마냥 알려진다. 앞서 말한 패왕별희가 이 영화에 대표로 꼽힌다. 서양인들에게 오리엔탈리즘을 유발하는 동양 영화에선 동성애, 동양의 자연환경을 표현한 독특한 미쟝센[[5]](#footnote-5),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하위 문화 등이 다뤄진다. 이러한 영화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동양을 소개하는 영화처럼 소개된다. 또한 파격적이고 신선한 소재로 관객들의 눈길을 끌기도 한다. 이는 블록버스터,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서양 영화와 달리 동양 영화가 절제되고 참신한 주제를 들고 서사를 펼치기 때문이다. 기존의 전형적인 기성 서양 영화에 지친 관객들이 동양 영화에 열광하게 된 셈이다.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피찻퐁 위라세타꾼 감독이다. 그는 <열대병>, <엉클 분미> 등의 영화를 통해 해외 비평가로부터 호평 받았다.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엉클 분미>를 보면 태국의 정글 속 미쟝센을 보여주고 내러티브를 최대한 배제하는 파격적 연출을 가한다. 서양 관객들과 비평가들은 이러한 신선한 분위기에 반해 아시아 영화에 빠졌다.

Ⅲ-2. 서양에서 모방된 오리엔탈리즘 - <라스트 사무라이>, <게이샤의 추억>

동양 영화 속 오리엔탈리즘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오리엔탈리즘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서양 감독이 직접 오리엔탈리즘적 요소를 묻혀 만든 영화로 재탄생한다. 서양의 영화 감독들은 아시아의 독특한 분위기, 파격적인 소재를 아시아의 배경만 빌려 모방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영화로는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와 장쯔이 주연의 영화 <게이샤의 추억>이 있다. 두 영화 모두 서양 자본과 서양 제작자에 의해 동양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배경이 동양임에도 불구하고 대사의 대다수가 영어로 진행되며 서양이 동양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라스트 사무라이>는 일본의 무사도 정신을 지향하고 기사도 정신을 추구하는 주인공 알그렌 대위 (톰 크루즈 분)를 중심으로 서사를 진행한다. 영화 속 사무라이는 강한 정신력과 도덕성을 갖춘 이상적인 인간으로 나타난다. 와페니즈와 같은 집단들에게 정의된 고결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이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사무라이가 기존 오리엔탈리즘의 시선에서 나가지 못한 채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 다른 존재로 정의되지 못한 전형성은 오리엔탈리즘이 드러난 다른 영화인 <게이샤의 추억>에서도 표출된다. 사무라이처럼 게이샤라는 서양에 존재하지 않던 존재로 서양인들에게 신비로움을 전해준다. 독특하고 이국적인 소품들은 오직 오리엔탈리즘을 심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이러한 인식은 프랑스의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의 저서 <기호의 제국>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일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저서에 드러냈다. 젓가락, 파친코, 사찰, 스모, 분재, 사무라이, 그리고 게이샤의 독특한 화장. 특히 게이샤와 사무라이는 오리엔탈리즘의 가장 강력한 아이콘이라며 자신의 서적에 저술했다. <게이샤의 추억>은 서양인들이 반한 이국적 존재, 게이샤라는 존재들이 지닌 미적인 면을 극대화한다.[[6]](#footnote-6)

Ⅲ-3. 영화 속 오리엔탈리즘의 결론

앞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영화 속 오리엔탈리즘을 크게 두 범주로 나눠 정의할 수 있다. 하나는 동양에서 드러난 서양을 매혹하는 오리엔탈리즘이며, 하나는 동양을 원조로 서양에서 모방된 다른 종류의 오리엔탈리즘이다. 그리고 두 범주의 오리엔탈리즘엔 공통적으로 기성 상업 서양 영화에서 보기 힘들었던 희소하고 예술적인 요소들이 첨부된다. 이는 동양 영화에서만 존재하는 주제가 아닌 서양 영화에도 존재하는 주제들이다. 하지만 오리엔탈리즘이 첨부된 영화들엔 기모노, 경극, 무수한 정글 등 서양에선 존재하지 않거나 거의 볼 수 없는 희귀한 요소들이 동반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엽기적인 소재나 실험적인 소재를 사용한다고 오리엔탈리즘이라 부를 순 없다. 오리엔탈리즘의 핵심은 서양에서 볼 수 없는 소재를 활용해 동양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서양인에겐 우월감을 부여한다는 점에 있다.

Ⅵ. 김기덕 감독 영화의 유형

이제 김기덕 감독이 지금까지 만든 영화들을 바탕으로 김기덕 감독의 영화 유형을 대표적으로 4가지로 정의하고, 그 영화들의 오리엔탈리즘적 요소에 대해 정리한 다음 오리엔탈리즘과의 연관성에 대해 정의하고자 한다. 김기덕 감독이 연출한 장편영화 24편 중 유작이자 공개되지 않은 영화 <딘>, 그리고 4가지 주제 중 특정 주제에 해당된다고 말하기 애매한 영화 <숨>, <활>, <시간>을 제외하고 20개의 영화를 주제별로 나눠 정리하고자 한다.

Ⅵ-1. 파괴된 도덕성 속 고통받는 인물상

김기덕 감독 영화의 대표주자 격인 주제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비이상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영화는 상식을 벗어난 엽기적인 감성에 붙어 있다. [[7]](#footnote-7)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폭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 주인공은 특정한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기보단 본능과 충동에 이끌려 행동한다. <나쁜 남자>의 주인공 ‘한기’는 깡패다. 그는 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여대생 ‘선화’에게 반해 고백한다. 하지만 선화는 한기를 무시하고 이에 선화는 한기에게 강제적으로 키스를 한다. 한기는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인물로써 자신의 욕구에 매달린 채 행동하는 인물이란 걸 보여준다. 선화는 이에 한기에게 침을 뱉으며 저항하고 한기는 자신이 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선화를 매춘부로 만들어 타락시킨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갑작스러운 재앙처럼 고난을 겪는다. 선화는 잘못을 저지른 적 없는 평범한 소시민임에도 불행을 겪고 몰락했다. 일반적으로 귀책이 있는 사람에게 벌이 내려지는 영화의 내러티브와는 다른 구조를 취한 샘이다. 이처럼 김기덕은 잘못한 것이 없는 평범한 인물에게 고통을 내린다. 또한 고통받는 인간의 인물상을 생생하게 그림으로써 인간의 나약함과 선악의 경계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만든다. 초월적 존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벌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에선 신적 존재인 신 노인이 도박, 간음, 도둑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인물들에게 벌을 내린다. 이는 김기덕 감독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생각을 나타낸다.

<빈 집>에 등장하는 ‘선화’ 역시 고통받는 인물이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던 중 빈집털이인 ‘태석’에게 구원받는다. 태석은 선화를 데리고 다니며 자신의 범죄에 참여시키고 선화는 태석에게 감정적으로 동요된다. 영화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김기덕 감독의 작품 중 대다수는 고통받는 여성상과 남성 가해자 또는 구원자의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김기덕 감독이 여성단체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고통받는 인물을 그려내면서 여성을 수동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남성을 권위자로 여긴다는 것이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중 이 주제에 해당되는 영화로는 <빈 집>, <인간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 <나쁜 남자>, <섬>, <파란 대문>, <사마리아>, <뫼비우스> 모두 특정한 이유로 극단에 몰린 등장인물들이 고통받으며 겪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이다.

Ⅵ-2. 인간의 나약함과 찌질함

두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영화들 속 등장인물들은 첫번째 유형처럼 모두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은 고통이나 처절한 상황 마냥 형벌처럼 내려진 상황의 공포가 아닌 일상의 공포에 가깝다. 갑작스럽게 창녀로 전락한 <나쁜 남자>의 선화처럼 순간적인 문제에 의해 극단으로 치닫기보단 태생과 성장 이후 겪어온 일상 같은 고통으로 순응된 주인공이 내보이는 인간 특유의 나약함과 찌질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주인공인 스님은 절간에서 태어나 윤회의 삶을 겪는다. 이름 모를 이로부터 태어나 절에서 자란 동자승은 청년승, 장년승으로 성장해가며 사랑에 눈뜨고 실연을 겪으며 성장해 나간다. 그는 고통스러운 고난이나 아픔을 겪진 않지만 인생을 살아가며 겪을 수 있는 장애물에 부딪힌다. 이를 통해 자연의 이치에 밀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고 인간의 나약함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김기덕 감독의 데뷔작인 <악어>에서 더욱 중점적으로 드러난다. 한강의 노숙자로 살아가는 주인공 ‘악어’는 자살자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시체를 유가족에게 팔아가며 살아간다. 그는 어느 날 자살하려는 아름다운 여자를 구한다. 악어는 그녀와 교감하며 함께 죽기로 결심하고, 그녀의 손목과 지신의 손목에 수갑을 찬 채로 한강에 뛰어든다. 하지만 악어는 죽음에 대한 공포감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생존을 위해 손가락까지 자르며 빠져나가려 하지만 빠져나오지 못한 채 죽는다. 이렇듯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인간의 나약함과 찌질함, 현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며 자세하게 묘사한다.

이는 김기덕 감독의 성장배경이 영화를 제작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정된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후 구로공단에서 기술을 배우며 성장했고, 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구타 속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나서야 했다.[[8]](#footnote-8) 해병대에 들어가 5년간 하사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는데 이런 그의 삶이 녹아있는 영화가 바로 <해안선>이다. <해안선>은 해안 경계를 맡고 있는 해병대 속 한 소대의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이다. 영화 속에선 폭력적인 군대 내부 분위기와 부조리, 인명 사고 등 군대의 음침함이 그대로 녹아져 나온다. 영화 속에서 군인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민간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들이 그대로 등장하는데 이는 김기덕 감독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들이다. 이처럼 김기덕 감독의 영화 속에선 인간의 나약함과 찌질함이 그대로 드러나며, 이는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주제에 해당되는 영화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악어>, <실제상황>, <수취인불명>, <해안선>, <비몽>, <피에타>가 있다.

Ⅵ-3. 사회적 이슈

영화에선 사회적 이슈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감독은 영화를 매개체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문제를 간접적으로 말한다. 이 과정에서 감독의 정치색이 입혀지기도 하며 이 때문에 감독이 설화를 겪기도 한다. 사회 비판적 영화를 제작했다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창동, 임상수, 박찬욱 감독 등이 대표적이다. 김기덕 감독도 자신만의 시선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영화들을 다소 제작했다. 대표적인 영화가 2016년 만들어진 영화 <그물>이다.

영화는 배가 그물에 걸려 남한으로 오게 된 북한 어부 ‘철우’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철우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조사받고, 조사관으로부터 강하게 몰아붙여진다. 철우는 자신을 북한으로 보내 달라고 간청하지만 조사관은 철우를 간첩을 몰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서울에 버려진 철우는 매춘부 민자를 만나기도 하며 돌아다니던 중 함정수사에 빠져 간첩으로 몰리고 강압적인 수사 속에 결국 자신이 자백이라는 거짓자백을 한다. 하지만 철우를 도와주는 국정원 직원 ‘진우’ 덕분에 철우는 북한으로 돌아온다. 철우는 다시 평범한 삶을 살 것이라고 고대했지만 북한의 정보원들에게 끌려가 남한과 똑같은 방식으로 강압적인 조사와 사상검증을 받는다. 영화는 남한과 북한의 실상을 모두 보여주며 두 국가의 명과 암을 모두 비판한다.

영화 <일대일>은 조금 더 직접적이다. 김기덕 감독은 시사회에서 이 영화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바치는 영화라고 말하기도 했다.[[9]](#footnote-9) 영화는 사회의 적으로 여겨지는 용의자 7명을 잡는 복수극이다. 용의자는 국가기관의 하수인으로 군인, 경찰 등 다양한 직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화는 국가기관을 비판하는 사회적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분류에 해당하는 영화로는 <그물>, <일대일>, <스톱>, <시간>이 있다.

Ⅵ-4. 자전적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아리랑>은 김기덕 감독 자신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로 이루어져 있다. 러닝타임 내내 등장하는 9개의 배역 모두 자신이 맡고, 자신과 직접 이야기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영화다. 영화에서 김기덕 감독은 자신이 직접 지은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내면을 말한다. 이는 당시 김기덕 감독이 놓였던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전작 <비몽>에서 주연 배우로 출연한 이나영이 촬영 중 사고로 사망할 뻔했고, 제자인 장훈 감독과 갈등을 벌이며 직접 장훈 감독을 배신자라고 지칭하기도 하는 등 내외적으로 큰 혼란을 겪은 내면이 드러난다.

<아리랑>이 감독이 된 후 겪은 고된 삶에 대해 토로한 영화라면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던 김기덕 감독의 감독이 되기 전 삶이 그려져 있는 작품이다. 영화는 히피, 노숙자 등 하위문화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감독의 삶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장면이다. 김기덕 감독의 자전적 다큐멘터리로 여겨지는 영화는 <아리랑>, <야생동물 보호구역>, <아멘>이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오리엔탈리즘의 정의 및 김기덕 감독의 전반적인 영화 세계에 대해 알아봤다. 결국 오리엔탈리즘에 해당하는 영화는 서양에서 볼 수 없는 희소하고 예술적인 요소를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무수한 정글이나 동양적 모습을 보이는 기모노, 게이샤 등 시각적인 요소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김기덕 감독을 무작정 오리엔탈리즘의 수혜자로 지칭하는 것은 잘못됐다. 김기덕의 영화는 강렬하다. 충격적이고 참신한 소재를 활용한다. 이런 점에 해외에서 주목한 점이 어느 정도는 있다. 하지만 단순히 영화가 참신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모든 작품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신비성에 갇혀서 계산될 순 없다. 김기덕 감독의 스타일이 동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나약함과 폭력적인 상황을 주제로 영화를 찍는 감독들은 서양에도 충분히 존재한다.

봉준호 감독과 박찬욱 감독 모두 참신한 주제와 독창적인 영화로 성공을 거뒀지만 그 누구도 둘을 오리엔탈리즘으로 성공한 감독이라 부르진 않는다. 오히려 박찬욱 감독의 성공이 오리엔탈리즘에 가깝다. <올드보이> 속 산낙지라는 기괴한 소품을 활용해 서양 관객들에게 충격을 주는 등 영화 속 곳곳엔 오리엔탈리즘 요소가 산재해 있다. 오리엔탈리즘으로 성공했다는 말은 감독에겐 모욕에 가깝다. 너는 참신한 영화를 만들었지만, 이건 모두 동양의 신비성에 갇힌 우매한 서양인들의 호평일 뿐이다. 동양이라는 존재감을 걷어내면 너에게 남는 건 없다. 이런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김

김기덕 감독은 속죄와 구원이라는 요소를 활용해 호평을 받은 것일 뿐이다. 그의 영화 속엔 동양만의 신비적 요소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영화 속 잔인하고 자극적인 요소로 주목받은 건 사실이다. 그런 논리로 치면 마찬가지로 자극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라스 폰 트리에 감독도 오리엔탈리즘인가? 김기덕은 미국인이었어도 성공했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독창적인 색채는 그가 서양인이었다고 해도 그대로 남아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 그에게 오리엔탈리즘이란 낙인은 그가 오로지 동양인이란 이유만으로 성공했을 것이란 모욕이나 마찬가지다. 해외에서 성공한 한국인 감독인 박찬욱, 이창동, 홍상수, 봉준호에겐 오리엔탈리즘이란 수식어가 붙지 않는다. 박찬욱 감독도 김기덕 감독처럼 근친상간이라는 요소를 활용하고 산낙지를 산채로 삼키는 등 서양 사람들에게 쇼크로 느껴질 장면을 연출했음에도 말이다.

너무 나만의 생각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나는 김기덕에게 오리엔탈리즘이란 오명이 씌워진 이유가 그가 가진 배경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는 초졸이다. 서울대, 유럽 유학파가 휙휙 지나가는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입지에 있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후 가진 것 하나없이 프랑스로 넘어갔다. 생닭을 뜯어먹으며 버텼고 3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영화를 봤다. 그는 시나리오 공모전 대상으로 영화계에 입봉한 후 파격적인 영화만을 만들어왔다. 매번 수많은 논란에 시달려왔고 여성계를 적으로 두고 살아왔다. 사회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이유로 보수를 적으로 돌렸고, 북한을 최악의 국가로 묘사하며 진보를 적으로 돌렸다. 성폭력 미투 논란 이전부터 그에겐 온 사방이 적이었다. 평론가들도 그를 고깝게 봤다. 영화 피에타로 한국 역사에 남을 상을 수상한 그에게 평론가들은 어정쩡한 비평을 남겼다. 나는 그가 영화계의 이단아라는 이유로 그의 영화가 오리엔탈리즘의 수혜일뿐이란 혹평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그가 오리엔탈리즘 감독이라 불리는 이유다.

Ⅵ. 참고문헌

1. 에드워드 W. 사이드,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 2005영화 목록 주루룩

2. 박민영. (2007). 인생경극: 영화 〈패왕별희〉의 상징성. 문학과영상, 8(2), 131-153.

3. 서의석. (2014). 할리우드 영화에서 표현된 동아시아 오리엔탈리즘의 변화 그리고 탈식민주의. 영화연구, (62), 133-177.

4. 김수남. (2014). 김기덕 감독의 알레고리적 영화작가정신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2), 94-102.

1. [[단독] 김기덕 감독, 라트비아서 오늘 새벽 코로나 사망 확인, 조선일보, 2019년 12월 11일, 노석조 (chosun.com)](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0/12/11/WIR7G2RFS5BNFHCXM6V32RITVM/) [↑](#footnote-ref-1)
2. 에드워드 W. 사이드,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 2005, p18 [↑](#footnote-ref-2)
3. 신민영, 코로나19로 또다시 타격 입은 세계화… 탈세계화 흐름 당분간 이어질 듯, KDI 경제정보센터, 2020-12,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1&cidx=13099&sel\_year=2020&sel\_month=12 [↑](#footnote-ref-3)
4. 정한석, <투게더>로 돌아온 첸카이커의 진실 혹은 모순 [2], 씨네21, 2003-03-21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190 [↑](#footnote-ref-4)
5. 연극이나 영화에서 관객들에게 감독의 의도를 전하기 위해 등장인물들의 역할이나 동작, 소품, 무대 장치, 조명, 카메라, 촬영 등을 독특하게 계획하고 구성해 표현하는 미학적 행위. [↑](#footnote-ref-5)
6. 김형석, 동양이 상품이 되었나, 시사저널, 2006-02-06,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190 [↑](#footnote-ref-6)
7. 김수남. (2014). 김기덕 감독의 알레고리적 영화작가정신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2), 94-102. [↑](#footnote-ref-7)
8. 초졸, 구로공단 생활… 김기덕 ‘문제의 삶’ 한겨레일보, 2012.09.09 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550823.html [↑](#footnote-ref-8)
9. 김기덕 감독 “일대일”, 故노무현 대통령에게 바친다”, 조선일보, 2014.05.12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12/2014051201910.html [↑](#footnote-ref-9)